

〈엘리 제사장의 교훈〉
목장교재 목자용 지침서

4/15(주일) 설교 내용

사무엘상 2:12-17

1.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은 오히려 그 자녀에게 독이 됩니다. ‘나는 충분히 훈계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고, 또한 내 주변에 그런 가정의 모습을 경험했다면 오늘 말씀의 엘리 제사장의 모습에 비추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범죄한 인생을 살게 된 것에는,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의 역할이 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범죄한 아들의 모습을 두고,

신앙적으로 따끔하게 훈계를 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이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사랑의 방법’ 아니라는 것을..

그릇된 사랑으로 인해,

두 아들은 건잡을 수 없이 었나가기 시작했고,

급기야 하나님 앞에 큰 징벌을 받게 됩니다.

혹시 다른 가정의 아이들의 잘못에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막상 내 자녀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너그러운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함께 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2.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하나님의 소관이며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모습, 또 민수기 12장의 모세를 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에 대한 오늘 설교 내용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민 12:8-9)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징계하시는 모든 주도권도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목회자)들과의 관계에서

내 뜻과 의지를 앞세워 대항한 적은 없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원들에게,

목회자들이 도덕적/영적으로 범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신앙의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신뢰하자고 권면해 주시며

목장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